

문재인 탄핵 3·1절 국민대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 시간 : 3월1일 월요일 정오부터

▶ 구호 : 문재인탄핵 자유통일

◆ 잃어버린 대한민국

조선 말 흥선대원군의 “우리 민족끼리 살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쇄국정책으로 조선은 근대화 과정에서 낙오되었다. 그 결과 1910년 한일병합이 되어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잃었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대한민국이 3.1독립운동을 통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7,500여명이 생명을 던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3.1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이 핵심 주제다. 누가 3.1운동을 일으켰나. 이승만이 일으켰다.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미국 선교사를 통해 국내로 밀서를 보내 김성수, 송진우, 임영신을 움직였다. 세 사람이 천도교와 국내 기독교 세력을 움직여 거족적인 3.1독립운동이 폭발했다.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움직여 3.1운동을 기획하고 일으킨 사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비폭력, 무저항, 외교독립운동이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자 소련과 손잡고 무장투쟁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독립을 쟁취하자는 세력이 생겨났다. 그래서 3.1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어머니 소릴 듣는다. 3.1 운동 실패로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소련은 불세비키혁명 세력과 김만겸 등을 이용하여 박헌영과 상해임시정부 요원들에게 공산혁명을 전수했다.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여 공산혁명을 시도했다. 그 해 신의주사건으로 조선공산당 대표인 박헌영 이하 66명이 구속되고 37명이 수배를 받았으나 그 세력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무장투쟁 세력이 만주에서, 국내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해서 이 나라가 독립되었나?

아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열강 세력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최초의 선언이 1943년 12월의 카이로 선언이다. 전 세계 수많은 식민지 국가 중에 오직 한 나라, 한국을 꼭 집어서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롭게 독립시킬 것을 결정한다”고 선언했다.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은 일본을 패망시키고 카이로선언의 약속에 의해 한국을 독립시켜주었다.

누가 이 위대한 선언을 이끌어냈나? 지금까지는 김구 주석이 장개석 총통을 설득했고, 장개석 총통이 카이로에서 한국 독립을 제안해서 카이로선언이 나왔다고 알려졌다. 최근 연구 결과는 그게 아니었다. 이승만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세 차례나 편지를 써서 한국 독립을 청원했고, 이승만을 돕는 미국의 후원자들, 예를 들면 미국 상원의 원목을 맡은 해리스 목사 같은 분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보인 해리 홉킨스를 움직여 카이로 선언을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유명익 교수는 “카이로선언 탄생의 가장 큰 한국인 공로자는 이승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일본의 식민통치로 대한민국은 나라를 물론 말과 이름, 심지어 성까지도 빼앗겨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국이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여 기적 같은 해방을 맞게 되었다. 연합국은 카이로선언의 약속을 이행하여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주었다.

◆ 대한민국 건국

해방 이후 무정부 상태에 빠진 한반도는 어떤 정치체제를 선택하느냐를 놓고 미국과 소련, 민족지도자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발생했다. 그 당시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고 김구는 상해에 있었다. 그들이 귀국하기까지 두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미군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틈을 타서 전남 광주 벽돌공장에 위장 취업해 숨어 있던 공산주의자 박헌영은 이승만과 김구의 이름을 도용하여 1945년 9월 6일 전국에 147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무정부 상태에서 정부 행세를 한 것이다.

해방공간에서 좌익세력이 판을 친 것은 공산주의자 여운형이 조선총독부로부터 통치권을 인수받았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우익인 송진우에게 통치권을 넘겨주려 했다. 우익 진영은 중국에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인수의 주체가 되어야

문재인 탄핵을 대한민국 어디서 왔으며, 어

한다고 생각했다. 또 조선총독부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면 후에 독립국가가 수립됐을 때 그 법통이 조선총독부가 된다. 이걸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익 진영은 총독부로부터 통치권 인수를 거부했다.

반면에 공산주의자들은 쌍수를 들어 통치권을 인수받았다. 여운형은 그 조건으로 국내 감옥에 수감된 사상범, 즉 공산주의자들의 석방과 식량 배급권, 언론사 인수권 등을 요구했다. 총독부는 이 요구를 수용하여 해방된 다음날인 8월 16일 오전 9시, 서대문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10여 개 감옥에서 1급 공산주의자 1만여 명이 일시에 풀려났다. 이들이 대거 좌익세력에 가담하여 남한의 정치판이 급격하게 좌경화 된 것이다.

박헌영은 능수능란한 권모술수와 서울에 있던 소련영사관의 지령과 자금 지원을 받아 경쟁자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권좌에 올랐다. 박헌영이 해방공간에서 공산주의의 두목이 된 것은 일제시절 소련 유학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준 소련의 지원과 지령, 자금 제공 덕분이었다.

박헌영은 일본인 명목의 적산과 토지 등을 강제 몰수하여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시행한다고 국민을 선동했다. 남한 국민의 78%가 이를 지지하여 이 나라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조선공산당의 지배하에 들어갈 뻔했다. 요즘 문재인 정부가 선거 앞두고 코로나 지원금 뿌려서 표를 싹쓸이 하는 것이나 똑같은 수법이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동맹국이었던 소련과 손잡고 신탁통치를 통해 한반도를 독립 시키려고 했다. 좌우합작을 시도한 것인데, 좌우합작의 종착역은 공산화라는 사실을 꿰뚫어 본 지도자는 전 세계에서 이승만 한 사람 뿐이었다. 좌우합작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좌익들이 선전선동을 통해 우익 세력 지도자들을 부패, 부도덕성, 적폐세력으로 몰아 차례로 제거한다.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암살하거나 자동차 사고를 가장하여 죽여버린다. 결국 공산주의자들만 남는데, 이쯤 되면 간판을 ‘공산당’으로 내걸고 공산화의 길로 나간 것이 동구권 공산화의 일관된 수법이었다.

북한에서 ‘공산당’이란 용어 대신 ‘노동당’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1945년 11월 신의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점령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소 반공 의거가 폭발했다. 체코나 헝가리에서 일어난 반소 반공의거보다 1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인 의거다. 학생들의 반소 반공 의거를 기관총, 전차, 전투기까지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바람에 ‘공산주의’라면 주민들이 치를 떨었다. 그래서 공산당 대신 노동당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신의주 의거 배후세력을 조사한다면 기독교 세력, 우익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시베리아로 끌고 가자 뜻 있는 반공 세력들이 대거 월남하여 서북청년단을 결성해서 남한의 공산세력과 투쟁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북에서 월남한 반공 세력, 기독교 세력이 건설하고 지켜내고, 발전시킨 것이다. 정주영 회장 이북 사람이다. 반공 기독교 지도자들 모두 이북 출신이다. 공산세력과 피나게 싸운 서북청년단 모두 이북 출신이다.

미 국무부와 미군정이 좌우합작 놀음을 하고 있을 때 이대로 가면 남한마저 공산화되고 만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승만은 1946년 12월 직접 미국으로 간다. 자기가 직접 미국 조야에 호소하여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미국으로 간 이승만은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소련의 타협으로는 안 되니, 유엔으로 이관하여 유엔 주관하에 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소련 간첩이 우글대던 미국 무부는 이 제안을 거부했으나 피점령국 담당 차관보인 존 힐드링 장군이 이승만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했다. 결국 역사는 이승만의 의도대로 진행됐다. 이승만의 심복이었던 임병직은 존 힐드링 장군이 대한민국 건국의 은인이라고 칭송한다.

유엔총회 결의에 의하면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느닷없이 소련이 북한 지역 총선 준비를 위해 방북하려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을 저지한다. 남한 인구는 2,200만, 북한 인구는 900만이었다. 인구 비례에 의해 총선을 하면 공산주의가 주도권을 잡을 수 없으니 소련은 유엔 감시하의 총선을 거부한 것이다.